

 국토교통부		<h1 style="margin: 0;">보도참고자료</h1>		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
		배포일시	2018. 11. 15(목) 총 3매(본문 3매)	
담당 부서	해외건설지원과	담당자	· 과장 이명섭, 팀장 이해선, 사무관 이기림·김목진 · ☎ (044)201-3528	
	해외건설정책과	담당자	· 과장 김성호, 서기관 장창석, 주무관 남혜숙 · ☎ (044)201-3517	
보도일시		2018년 11월 16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1.15.(목) 18:30 이후 보도 가능		

해외건설, 상생·혁신산업으로 육성한다.

중소·중견기업 동반진출 강화, 투자개발사업 진출 확대,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·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해외인프라 시장 진출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, 일자리 창출과 동반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.

①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촉진 및 중소·중견기업 지원강화

□ 신용도, 담보력 등 부족으로 해외진출 자금이 부족한 중소·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'해외시장 개척자금' 지원을 확대하고, 중소기업이 수주한 우수 사업에 대해 사업성평가* 수수료도 지원('18.9월~)한다.

* 기업 신용도가 아닌 프로젝트의 우수성과 기업의 공사수행능력을 기준으로 보증 가능여부를 평가하여 수은 등 금융기관에 제공하여 보증 근거로 활용

○ 대기업·중소기업 동반 진출과 관련한 다양한 지표*들을 종합적으로 고려, 동반진출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수출금융 시 우대, 정부지원 대상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.

* 동반성장지수(공정위·동반성장위), 상생협약이행(수은), 우수 해외건설사(국토부) 등

□ 또한,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역량 강화를 위해 신규 채용자에 대한 해외현장훈련 지원(OJT)비용을 상향하고 지원 대상 및 기간을 확대('18.10월~)하는 한편,

< 해외현장훈련 지원 제도 >

구분	기 존	변 경
지원대상 확대	당해 연도 신규 채용	+ 전년도 신규 채용
지원금 상향	파견비: 최대 180만 원 훈련비: 월 80만 원	파견비: 최대 200만 원 훈련비: 월 100만 원
지원기간 확대	12개월	비(非)청년 12개월 / 청년 24개월

-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를 통한 전문가 파견 컨설팅 등 중소기업 상담·자문 기능을 강화하고, '19년부터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해외 공동거점(2개소)을 운영하여 해외정보 획득 및 현지 수주활동 지원을 제고할 예정이다.

② 투자개발사업 시장 확대에 대응한 정책지원

□ 지난 6월 출범한 '한국해외인프라·도시개발 지원공사(KIND)'를 중심으로 투자개발사업 모든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.

- 정상외교, 장관방문 등 고위급 외교와 국제금융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하여 발굴·협의를 투자개발사업의 세부 사업구조를 정하고, 추진 전략을 마련하여 국내기업의 동반진출을 견인한다.

○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신남방지역(아세안·인도 등)과 북방지역(CIS, 러시아, 동유럽, 몽골 등) 내 인프라 개발사업에 금융을 지원하는 '글로벌 인프라 펀드'를 '22년까지 각각 1억불 규모로 조성하고

- '한-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' 구현을 위한 교통·에너지·수자원·스마트 인프라 등 4대 중점협력 분야와 극동아시아·유라시아 개발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.

③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

□ 지난 10.31일 확정된 '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'에 따라 건설기술, 유지관리 등 공공의 기술개발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국가 연구

개발(R&D) 사업을 통해 핵심기술을 보급할 예정이다.

< 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연구개발(R&D) 사업(안) >

구 분	주요 기술	투자비 및 연구기간
스마트 건설기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토공장비 및 구조물 건설 자동화 • 스마트 안전 관제 • 통합 정보 플랫폼 구축 	• 약 2,000억 원('20~'25)
스마트 유지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물인터넷(IoT)·빅데이터 기반 최적 유지보수 • 시설물 손상 탐지, 수명 자동 예측 	• 약 1,400억 원('21~'27)

* 건설재료, 플랜트 등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타 R&D 사업도 추진

- 또한 시중 유동자금을 영세한 중소 건설 신기술 개발업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 유도 모태펀드*를 조성('20년)하고, 스마트 건설 기술을 적용하는 공사의 경우 턴키 발주가 가능토록 입찰제도를 개선하는 등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환경을 조성한다.

□ 국토부 정경훈 건설정책국장은 '건설현장은 다양한 공종 별로 인력·설비·자재가 필요한 만큼, 해외 인프라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·중견기업과의 협업이 필수적'이라며,

- '올해 안으로 해외인프라·도시개발 지원공사(KIND)의 시범 투자 대상사업을 확정하는 등 건설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산업이자 함께 성장하는 상생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건설정책을 추진하겠다.'고 밝혔다.



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지원과 이기림 사무관(☎ 044-201-3528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